

현대 일본경어에 관한 연구

이 회 두
(원광대학교)

Lee, Hee-Doo(1995). A Study on the Modern Japanese Honorific. *Linguistics* vol. 3. We mainly investigated honorific behaviors, selection conditions of 「お」, 「ご」 structural characteristics which seem to be important in Japanese honorific. Main elements influencing on honorific behaviors are based on the relations with superiors and inferiors, comprehension, familiarity and so on. We found out that in the selection conditions of 「お」, 「ご」 native Japanese family languages have 「お」 Chinese family languages have 「ご」 and we found this phenomenon is general but not prevailing. We can recognize that Chinese vocabulary related to female has gradually changed from 「お」 to 「ご」. We described the complexities of Japanese honorific as one characteristic. Complexity means that Japanese honorific system is complex and we have to select appropriate words in each speaking situation. In other words, this means that there is complexity not because each honorific form exists in each vocabulary, but because attachment form to normal word form is complex.

1. 서론

일 본어는 한국어와 더불어 다른 언어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어가 발달되어 있다. 경어가 발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본어의 아름다운 특색일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 경어가 정확히 적절하게 사용되면,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해주는 역할도 될 수 있다. 들어서 기분 좋고, 상쾌한 말은 그대로 아름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럼, 일본경어에 있어서 아름다움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그 경어표현자의 성실한 대인관계이며, 거기에서 표출된 인간관계의 조화일 것이다.

한편, 경어사용이 특히 젊은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경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기표현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것은 한 개인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손실이다. 일본경어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복잡한 경어체계 즉, 존경어·겸양어·정녕어(정중어)·미화어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상대방과의 上下관계, 이해관계, 친소관계등에 따라 경어행동의 조건이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다.

경어는 문법 및 어휘등과 관련된 언어현상이면서 문화·사회적 요소가 잘 반영되어있다. 따라서 일본 경어연구는 언어현상 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적 배경까지 알아 볼 수 있는 의의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경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는 분야를 기술함으로써, 일본어 학습자에게 보탬이 되고자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2장에서는 경어행동을 좌우하는 사회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그 상황에 적절한 경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고, 3장에서는 접두사 「お」, 「ご」의 다양한 선택조건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お」또는 「ご」가 붙어야 할 조건, 「お」또는 「ご」가 붙어서는 안될 조건, 「お」또는 「ご」가 붙어도 안붙어도 무방한 조건등을 기술하였으며, 또한 문제점도 파악해보았다. 4장에서는 일본경어의 구조적 특색을 기술하였는데 그중 첨가형식의 복잡성과 과잉경어에 대하여 주로 다루었다.

2. 경어행동의 조건

경어행동이란 말도 언어행동의 하나로써 취급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대인적인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어행동은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파악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의식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어행동은 넓은 의미에서 볼때 사회적인 현상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경어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어느 외국어든 어렵지 않은 언어는 없다. 그것은 언어습득의 어려움보다, 그 나라의 국민, 민족의 다양한 언어행동의 습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양한 인간상호관계 즉 사회관계, 심리적인 관계등에 응해서 가장 적절한 언어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움 일 것이다.

언어의 근본적인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전제하에서 어떤 경어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경어행동은 사용장면에 적절하도록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장면이라는 말은, 경어행동이 행해지는 장소, 상황 혹은 상대방을 가르키는 의미로써 사용된다.

표현 주체자가 표현 수용자 및 화제의 인물을 어떻게 대우하는

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표현 주체인 내가, 표현 수용자를 나와의 사회적 상하관계, 또는 친하느냐 친하지 않느냐의 친소관계 등을 생각해서 그에 적절한 표현형식을 사용하게 된다.

- (1) はやく持ってこい.
- (2) はやく持ってきてちょうだい.
- (3) はやく持ってきてください.
- (4) はやく持ってきてくださらない?
- (5) はやく持ってきてくださいますか.
- (6) はやく持ってき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

등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어떠한 표현형식이 보다 정중한가, 또 어떠한 대상에게 어느 정도의 표현형식을 써야 할지가 일본어 교육의 장면에서 극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 경어행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¹⁾

- (1) 上下關係に基づくもの.
 - ① 會社や官廳における上司
 - ② 年長者
 - ③ 身分の上の者
 - ④ その道の先輩
- (2) 恩恵・負い目の關係に基づくもの.
 - ① 恩恵を与えた者.
医者(患者), 教師(生徒の父兄), 客(商人)
 - ② 被害を与えた相手
- (3) 力關係によるもの.
腕力・權力の強い者(腕力・權力の強いもの).
- (4) 親疎關係によるもの.
初對面の人など親しくない者

경어행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역시 상하관계라고 볼 수 있다. (1)-①의 경우는 역할에 따라 상하관계가 구분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보면, 회사에서는 회장·사장·이사·부장·과장·계장·평사원등의 직급이 이에 속한다.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선생과의 관계 및 선생과 학생과의 관계등이 있으며, 스포츠 세계에서 감독과 코치, 코치와 선수, 여러집단의 지도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이에 속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신분적 상하관계보다도 역할적 상하관계가 경어행동을 좌우하는 힘이 강하다고 생각되어진다. (2)-②의 경우는 나이에 따라 상하관계가 구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본사회

에서는 나이가 경어행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인의 의지나 노력에 관계치 않고 나이가 많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경어표현이 달라진다. 가족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형제자매등의 장유의 서열, 학교에 있어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등이 이에 속한다. (3)-③의 경우는 신분의 상하관계에 따라 경어행동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계층은 경어사용의 전제조건이 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그다지 신분차의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어행동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저 황실에 대해서는 신문, 잡지등에서 경어표현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2)의 경우는 은혜를 주는 측과 은혜를 받는 측과의 관계도 경어행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의사와 환자, 교사와 학생의 학부형, 손님과 상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것이든 후자가 은혜를 받는 측으로서, 전자에게 경어행동을 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이해관계 위에서 결부된 대인관계에서는 지위적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경어행동이 사용되는 경우이다.

(3)의 경우는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의 관계에서도 경어행동이 유발되는 경우이다. 권력자의 경우는 사회적 위치가 높고 물론, 본질적으로는 상하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역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의 경우는 상하관계와 함께 경어행동을 좌우하는 큰 요소이다. 상대방과 초대면이나 아니냐, 친하느냐 친하지 않느냐, 혈연적이냐 혈연적이지 않느냐에 따라 경어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첫 대면의 상대에게 격식있는 경어 표현을 사용하고, 점점 친숙해 감에 따라 경어표현이 사라져가는게 당연할 것이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현대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 현저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친소관계에서는 일종의 사회적 또는 심리적인 거리의 문제로 원칙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친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친하게 되는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친한 감정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외에도 경어행동의 성립조건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內」, 「外」의 인식파악이 바로 그것이다. 경어사용에 있어서 화자측에 속해있는가의 식별이 경어표현을 해야할지의 포인트가 된다. 「內」의 공간에 속하는 가족, 가족과 관련된 친척, 직장등은, 귀

속의식에 관련된 생활공유 공간으로써 그 구성원에 대한 경어행동은 비 구성원의 경우와 구별된다.

화자와 관련된 가족, 친족, 회사등은 「內」의 공간에 속해서 상대방인 「外」에 대해서는 화자가 자기의 것을 「外」의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경어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표재의 인물이 자신, 자신쪽의 「內」의 인물이면, 상하관계와 관계없이 경어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화자와 청자 그외의 제 3자에 관에서는, 격식을 차린 장소에서 경어표현 수용자는 경어로 표현되지만, 격식이 없는 장소에서는 화자의 경어의식 차이에 따라 경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사용되지 않기도 한다.

한편, 공적장면에서는 들만이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때 보다 정중한 표현을 쓰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하면 1대多的 장면은 1대1의 장면보다 정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간접적인 장면 즉 전화, 편지등으로 타인과 접하는 경우는 몸짓, 태도등으로 경의를 표하지 못하고 음성 또는 문자만으로 표현수단이 되기 때문에 직접 타인을 접할때보다 정중하게 된다.

3. 「お」와 「ご」의 선택조건

일본경어의 체언에는, 여러 접두어에 의한 표현방식이 있는데, 그 중 「お」, 「ご」가 대표적이다.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おん」·「み」·「おみ」·「ぎよ(御)」등이 있지만, 모두가 관용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자유롭게 붙이거나 뗄 수 없게 되었다. 문어체의 문서, 서간문등에서는 「高~」·「玉~」·「尊~」·「貴~」·「芳~」·「小~」·「拙~」등 상당한 수의 한어 접두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극히 사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현대 경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쓰이고 있는 「お」, 「ご」에 대한 사용방법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和語계통의 語에는 「お~」가 붙고, 漢語계통의 語에는 「ご~」가 붙는 경향이 있지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어보면 「お料理」·「お電話」·「お師」·「お弁当」·「お食事」등처럼 漢語계통의 語에도 「お」가 붙는 경우도 흔치않다. 한편, 「ご返事」와 「お返事」, 「お勉強」와 「ご勉強」처럼 「お」, 「ご」가 둘 다 붙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お」에 대해서 紫田武氏(1957)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自然・礦物・植物・形・色・機械工業組織に關する語には

「お」がつきにいく, 食事・心動き・感情・からだの働きに関する語には「お」がつきやすい. また, 外國語にはつきにくい. これをまとめて, 女性の日常生活であまり使わない語には「お」がつきにいく. また, これからの條件 な次いで, 「お」ではじまる語にはつきにくい. 悪感情の語(わたしが, 品の悪いことばとしたものはこれにはいるだろう)にはつきにくい. 長い語にはつきにくい. 食事・心の働き・感情・体の働きなどには「お」がつきやすい. --

외래어에는 「お」가 붙기 어렵지만 「お飲みものは おビールですか, それとも お酒になさいますか」등과 같이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여성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남성들에게도 널리 사용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이 경우 과잉경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부의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ビール, トイレ, タオル, 歯ブラシ, バン, バター, ジャム, コーヒー, 레몬, 스푼, 셔츠, 메가네, 스카트, タタミ, 카판, 하드バッグ, 로-sock, 노트, 스탠드, 미칸, 파나나, 리스

위 예는 「お」가 붙기 어려운 외래어들이다. 그런데 「おビール」의 경우처럼 몇년 사이에 친숙한 말로써 정착되어 온 경우도 있어 적어도 여성에 한해서는 써도 이상하지 않은 듯하다.

「お」가 漢語에 붙는 경우는 주로 식사 등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며, 주로 한어의식이 사라진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おしゃれ, お客, おけいこ, お正月, お天気, お嬢さん, お茶, お料理, お札, お宅, お役, お中元, お風呂, お菓子, お食事, お歳暮, お洗濯, お徳(得)

한편, 미화어의 「お」가 여러형태의 체언에 붙어 사용되기 때문에 과잉경어라고 하는 말이 나올정도로 논란이 되어 오기도 했다. 「お」가 붙어도 되는 경우, 「お」가 붙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다. 붙이는 방법에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NHK에서 「お」의 남용을 막기위해 단어마다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참고해 보면 다음과 같다.³

-「お」를 붙여도 좋은 경우 -

お産, お茶, おつゆ, お菓子, お茶うけ, おしるこ, おだんご, おぜん(膳), おわん(椀), お湯

-「お」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年始, 年始まわり, 書きぞめ, 彼岸, 中日, 中元, 迎え火,
念仏, 墓参り, 見合い, 仲人, 嫁入り, 披露, 年玉, 盆, 寺,
寺参り, 経, 通夜, 七夜, 悔み, 祝い, 神楽, 裁縫, 米,
麥, 豆, 粉, ジャがいも, さつまいも, かきもち, うどん,
そば, 夜食, 夕食, 赤飯, かゆ, 弁當, 雑煮, 豆腐, さかな,
さしみ, 肉, 野菜, 葉, 干菓子, まんじゅう, せんべい,
ようかん, 鹽, しょうゆ, 砂糖, みそ, 乳, 酒, 白酒, とそ,
しる, みそしる, 吸物, 香の物, つけ物, 料理, 味, 食事, もち,
すし, すまし, むすび, ビール-, コーヒー-, 紅茶, うち, へや,
玄関, ざしき, 客間, 茶の間, 納戸, 台所, 風呂, 便所, 火鉢,
火箸, こたつ, 小皿, 茶碗, 湯のみ, どんぶり, どびん, しゃくし,
さじ, 箸, 鍋, 釜, 火, 水, 岸, 人形, 盆, 店, 客, 肉屋,
さかな屋, 酒屋, 米屋, そば屋, しる, こ屋, 豆腐屋, 風呂屋,
者, 勘定, 金(かね), 札(さつ), つり, 友達, みやげ, 尻, 熱

- 慣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

おめでた, お参り, お札(ふだ), おくるみ, おむつ, おしめ, お古,
おたいこ, お供え物, お供え(もち), おひる(晝食), おこわ, おかず,
おにぎり, おまじり, おひたし, おやつ, おはき, おでん, おはち
(飯びつ), おひつ, おしゃぶり, おはじき, おしろい, おかざり(正月
の), おまる(便器), おかわ(便器), おたま(しゃくし), おまけ, おな
か, おでぎ, おめざ, おしゃべり, おしゃれ, おざなり, おせっかい,
お化け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漢語에는 「ご」가 붙는
다. 和語에 「ご」가 붙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한정되어 있다. 예를들
면, 「ごゆっくり」·「ごもっとも」등이 바로 그것이다. 일상적으로
「ご」가 붙는 어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ご飯」「ご本」「ご意見」「ご講演」「ご祝儀」「ご子」「ご神」
「ご説明」「ご連絡」「ご安心」「ご心配」「ご同情」「ご報告」「ご
苦勞」「ご存知」「ご承知」「ご希望」「ご出席」「ご缺席」
「ご努力」「ご老人」「ご主人」「ご長男」「ご長女」「ご隠居」
「ご馳走」「ご馳走さま」「ご許可」「ご認可」「ご援助」「ご休息」
「ご出發」「ご結婚」「ご利用」「ご助力」「ご招待」「ご進物」
「ご案内」「ご處置」「ご親切」「ご婦人」「ご年配」「ご面會」
「ご用件」「ご用事」「ご迷惑」「ご職業」「ご挨拶」「ご病人」
「ご入院」「ご就職」「ご注意」「ご批評」「ご理解」「ご經驗」
「ご不快」

위 예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ご飯」·「ご主人」·「ご親切」·「ご心配」·「ご

連絡」·「ご意見」·「ご安心」·「ご報告」·「ご馳走(さま)」·「ご講演」·「ご希望」·「ご出席」·「ご結婚」·「ご出発」·「ご利用」·「ご用件」·「ご迷惑」·「ご注意」·「ご理解」정도이다. 나머지는 주로 나이 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들이다.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お」, 「ご」의 사용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어보면, 「ご返事」였던 것이 어느 사이에 「お返事」라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ご立派」가 「お立派」가 되어도 무방하게 되었다. 여성과 관련이 있는 漢語어휘가 점차 「ご」에서 「お」로 변해가는 현상도 볼 수 있다. 漢語이기 때문에 「ご料理」가 원칙이어야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お料理」가 쓰이게 되었다.

한편, 「ご」가 붙는 말에는 인간의 정신, 본연의 마음자세등과 관련되어 있는 어휘가 많다. 예를 들어보면, 「ご意見」·「ご説明」·「ご批評」·「ご報告」·「ご講演」등과 같이 상대방의 지적수준이 높음을 존경하는 경우이며, 「ご心配」·「ご安心」·「ご注意」·「ご希望」·「ご迷惑」등은 상대방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남여에 따라 「お」, 「ご」의 쓰임이 달라질 수 있다. 즉 「お」는 주로 和語에 붙기 때문에, 부드럽고 여성적인 반면 「ご」는 주로 漢語에 붙기 때문에, 「お」보다 딱딱한 느낌이 들며 남성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용빈도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お」를 많이 사용하려는 심리가 강하다. 그것은 스스로 말을 통해서 아름답게 보이고, 좀더 교양있고 우아하게 보이려는 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お水」 「お漬物」 「お米」 「お膳」 「お箸」 「お茶碗」 「お財布」
 「お金」 「お札(さつ)(ふだ)」 「お花」 「お掃除」 「お机」 「お車」
 「お友達」 「お弁当」 「おさかな」 「お肉」 「お酒」 「お野菜」
 「おいも」 「おしょうゆ」 「おせんべい」 「おみそ」 「お部屋」
 「お玄關」 「お勝手」 「お風呂」 「お鍋」 「お釜」 「おそば屋」
 「おもち」 「おすし」 「お砂糖」

현대 젊은 남성들은 「お」를 생략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4. 경어의 구조적 분석

일본어 경어의 분류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학교문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尊敬語」·「謙讓語」·「丁寧語」의 三分類에다 「美化語」를 추가시킨 四分類를 택하기로 한다. 그 정의는 大石初太郎氏 『敬語』에 의한다.⁴

(1) 尊敬語 - 話題の人を高を待遇し, これに敬意を表することばである.

話題の人自身・その人の所有・所屬のもの， また その人の行爲や性質・状態を言うのに使われる。

- (2) 謙讓語 - 話題の人を低く待遇することばである。
主に自分や自分側のことをへりくだって言い， それによって相手方の人または聞き手に敬意を表する敬語である。
- (3) 美化語 - もの言いを上品，きれいにすることば。
聞き手に對する意識のもとに使われることもあるが， 要するに自分のことばの品位のために使われるものである。
- (4) 丁寧語(丁寧語)-もっぱら聞き手に敬意を表することばである。

(1) 尊敬語

사람의 호칭

- 代名詞關係 アナタ， アノカタ， コノカタ， ソノカタ， ドナタ， オタク， 貴下， 貴殿， 貴兄， 貴姉， 大兄…
- 接頭辭的인 요소가 붙는 것 오~(オ父上…)
- 사람의 이름 등에 접미사적인 요소가 붙는 것 ~サン(伊藤サン, 都子サン…), ~-sama(大山sama, 武夫sama…), ~ドノ(森山ドノ, てる代ドノ…), ~チャン(文夫チャン, ケンチャン…), ~チャマ(ボッチャマ, チャマ…), ~先生(工藤先生, ウィリアムズ先生…) 등
- 職名, 稱號等 加藤課長, 中山部長, 美智子妃殿下, チャールズ王子, ヒラリ-卿, 大谷親下, 小島博士等.

- ① あなたはバスでいらっしやいますか.
- ② このかたはあなたのおにいさんですか.
- ③ 殿下はその話をお聞きにならないでください.
- ④ 山村先生のお話には感動いたしました.
- ⑤ 田中さん, 山田さん, 木下さん, あなたがたはもうっても いいです.
- ⑥ 中山社長のご勇退の弁はまことにござりました.

○接頭辭와 接尾語가 同時에 붙는 것 오~ サン(オ父さん, オ母さん…), 오~ sama(オ兄sama, オ姉sama…), 오 ~ チャン(オ兄チャン, オ姉チャン…), 오 ~ チャマ(オボッチャマ, 오嬢챤마…), 오ん ~ sama(오ん옥sama) 등.

사람에 속한 사물을 부르는 경우

- 接頭辭的인 要素가 붙는 것 오~(オ考エ, 오シゴト, 오タク…), 고후(ゴ自宅, 고후業, 고후意…), 고 ~ (說明, 高著, 高配…), 貴~ (貴意, 貴家, 貴…), 芳 ~ (芳情, 芳名, 芳志…), 令 ~ (令兄, 令息, 令嬢, 令夫人…), 尊 ~ (尊父) 등.
- 接頭辭的인 要素가 二重으로 붙는 것 ご說明, ご令嬢, ご尊父 등.

- ① あなたのおかあさんは お元ですか.
- ② おくさまのご病はその後いかがでいらっしやいますか.
- ③ あなたさまのお考えをお聞かせください.

- ④ ご旅行中にあったことは、ご帰國後、報告いたします。
- ⑤ これから 貴社にまいります。
- ⑥ ご尊顔を拝し、光榮に存じます。

○動詞 그 자체 아갈(= 食べる), 이라썬찰, 오샤찰, クダサル, ナサル, ナサイマス, 메시아갈, 메스(= 着る), ご覽(ニナル) 등.

○動詞에 붙는 助動詞(라)レル

○動詞的連語 오~니ナル(오書키니ナル, 오야스미니ナル…), 고~니ナル(고心配니ナル, 고到着니ナル…), 오~나サル(오作り나サル, 오受케나サル…), 고~나サル(고寄附나サル, 고勉強나サル…), 오~아ソパス(오書키아ソパス, 오坐리아ソパス…), 고~아ソパス(고到着아ソパス, 고相談아소パス…), 오~데스(~ダ, ~데고자야마스, 오持チダ…), 고~데스(~ダ, ~데고자야마스, 고存ジデス, 고到着ダ…), 오~クダサル(오見セク다サル, 오書키ク다サル…), 고~ク다サル(고檢討ク다サル, 고通知ク다サル…), ~테크다サル(行ッ테크다サル, 呼ン데크다サル…) 등.

○形容詞·形容動詞 오~(오美시야, 오靜카다…), 고~(고熱心다, 고立派다…)

○副詞 고~(고ユック리…)

- ①ご主人は お宅にいらっしゃいますか。
- ②展覽會をご覽になるのであれば、おいそぎください。
- ③お急ぎになるなら、まだ 間に合うかと存じます。
- ④一緒に来てくださったので、道に迷わずにすみしました。
- ⑤お忙しい中をお集り下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⑥博士は 新發見の植物について學會で發表されるはずです。
- ⑦お美しくおなりでしょう。
- ⑧おすこやかにお過しください。
- ⑨どうぞ、ごゆっくりなさって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ませ。

(2) 謙讓語

사람의 호칭

○代名詞關係ワタシ, ワタクシ, ワタクシドモ, 小生, テマエ, テマエド 등.

○接頭辭的인 要素를 붙이는 것 愚~(愚妻, 憂息, 愚弟…), 豚~(豚兒), 小~(小妹) 등.

사람에 속한 사물을 부르는 경우

○接頭辭的인 要素를 붙이는 경우 愚~(愚見, 愚作…), 小~(小社, 小店…), 拙~(拙作, 拙宅, 拙著…), 弊~(弊社, 弊店…) 등.

- ①わたしのような者のお出幕ではありません。
- ②てまえの手違いで、めいわくをおかけしてしまいました。
- ③わたくしの子どもは わたくしをよくにしています。
- ④品物は、明日愚妻に持たせます。

⑤愚見を申し述べさせていただきます。

人的 動作을 나타내는 표현

○動詞 그 자체 アゲル, イタス, イタダク, サシアゲル, マイル, モウス, 모우シアゲル, 拝見スル, 拝借スル 등.

○動詞的連語 オ〜スル(オ見セスル, オ返シスル…), ゴ〜スル(ゴ通知スル, ゴ連絡スル…), オ〜イタス(イタシマス, オ知ラセイタシマス, オ送りイタシマス…), ゴ〜イタス(イタシマス, ゴ通知イタシマス, ゴ連絡イタシ마스…), オ〜モウス(モウシマス, オ預リモオウシ마스, オ返シモウシ마스…), ゴ〜모우스(ゴ모우시마스, ゴ案内모우시마스, ゴ説明모우시마스…), 오~ 모우시아게(오通시모우시아게, 오返시모우시아게…), 오~ 모우시아게(오指導모우시아게, 오説明모우시아게…), 오~ 이타다(오貸시타다, 오마카세이타다…), 오~ 이타다(오承知이타다, 오連絡이타다…), ~테이타다(貸시테이타다, 見세테이타다…), ~테아게(~送ッ테아게, 見세테아게…), ~테사시아게(作ッ테사시아게, 教エ테사시아게…), 오~시테사시아게(오送り시테아게, 오見세시테아게…) 등.

- ①もう一杯お茶をいただきたいのですが.
- ②この本をあなたにさしあげましょう.
- ③私がこれから申しあげることもしっかりお聞きください.
- ④お荷物はうちの村田がお持します.
- ⑤お忙しい中をお集り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⑥この件はわたくしからご説明申しあげます.

(3)丁寧語(丁重語)

○接頭辭 오~(靜カナ晚デスウネ…)

○代名詞 등 아チラ(アッチに對して), 코チラ(コッチに對して), 소チラ(ソッチ에對して), 도チラ(ドッチ에對して), 이카가(ドウ에對して) 등.

○助動詞 ~デス, ~マス

○動詞·形容詞 등 ~(デ)ゴザイマス, ~マイリマス(雪가降ッ테마이리마시타…), ~테オリ마스(ヨクワカッテオリ마스…), ~(ト)イタシ마스(ソウイタシ마스, 코노問題ハ~コレデ…), ~(ト)存ジ마스(ヨロシイカト存ジ마스…), ~(ト)모우시마스(八王子ト모우시마스, 東京都ノ西部…), ヨロシイ(イイ, ヨ이에對するもの) 등.

- ①あちらの品はいかがですか.
- ②こちらはいつでも結構ですから, そちらのご都合で決めてください.
- ③コーヒーと紅茶とどちらがよろしいですか.
- ④田中さんは外國語の中で英語が特に上手です.
- ⑤右手見えますのが Aデパートでございます.
- ⑥あなたは日本語がよく話せますか.

(4) 美化語

○接頭辭 종류 오～ツトメ, オヤスミ, オナカ, オヤツ…), ゴ～(ゴチンウ, ゴ酒…)

○自立語 종류 イタダク(ダベルに對して), タベル(クウに對して), ゴハン(メシに對して), お手洗イ(便所に對して)등.

- ①おしずかでけっこうなおすまいですこと.
- ②お菓子をだべる.
- ③あのかたがそう申されるのも, ご無理でございませんわ.
- ④お手洗いはどこですか.
- ⑤こういたしますとおいしくいただけます.

이상 일본경어의 구조와 예문은 통해서 일본경어의 구조적인 특색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경어의 표현형식은 분명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복잡하다는 말은, 존경어·겸양어·정녕어(정중어)·미화어등의 각자 표현양식이 다양하다는 것과 장면장면마다 적절한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로 한다. 우선, 일본경어의 구조적 특색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접사에 의한 표현형식이다. 즉, 접두어·접미어에 의한 다양한 첨가 형식을 말한다. 접두어인 경우는, 「お～」「ご～」「おん～」「み～」「おみ～」「ぎよ～」「貴～」「玉～」「高～」「尊～」「令～」「芳～」「小～」「弊～」「拙～」「愚～」「祖～」등이 있으며 접미어인 경우는, 「～さん」「～さま」「～氏」「～くん」「～殿」「～夫人·嬢·女史」「～關·親方」「～畫伯·丈」「～先生」「～教授·博士」「～師」「～陛下·殿下·閣下」「～社長·會長·課長」등이 있다.

이상의 접사 중에서「お」「ご」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첨가형식이다. 이「お」「ご」를 첨가시켜 사용의 장면, 문맥, 의식에 따라 존경어도 겸양어도 미화어도 될 수 있는 불규칙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①山村先生のお話には感動いたしました。(존경어)
- ②おとうさんを助け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しに行くと申しただけでございます。(겸양어)
- ③お菓子をお一ついかがですか。(미화어)
- ④御出席たまわり光榮に存じます。(존경어)
- ⑤かねて御案内のとおり御挨拶にうかがいました。(겸양어)
- ⑥朝, 顔をあらってすぐ御飯を食べた. 御飯がすんでから新聞を読んだ.(미화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개 한개의 어휘에 각자의 경어형식이 존

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어형에 「お」、「ご」등과 같은 경어 접두어를 첨가시키는 형식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요즈음 경어의 과잉사용이 일본어 혼란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잉사용으로 인하여 결국은 경어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언어사용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과잉」이란, 문자 그대로 경어를 너무 많이 붙인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장면·화제에 대해서 정도가 지나치게 붙여, 정상이라고 믿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최근, 선전문구나 은행등의 광고에는 거의 명사·동사앞에 「お」「ご」가 붙어있다. 예를 들어보면, 「満期になりましたならば, お客様のご預金をご計算しまして, お利息をお通帳にご記入いたします」 중복경어의 예, 「社長がお越しになりました」·「四十年も前から一六ミリ映畫をお撮りになっていらっしゃるとうかがっております」 등이 있다. 「お~になる」, 「れる」라고 하는 형태가 다른 존경어를 「越し」에 덮어쓰인 2중경어이다. 「お越しになる」정도가 충분하다. 「お撮りになっていらっしゃる」는 「撮っている」의 존경표현이지만, 「お~になる」, 「いらっしゃる」의 2중 존경어를 겹쳐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는 정도문제로, 사람에 따라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お撮りになっている」 또는 「撮っていらっしゃる」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층 고도의 존경표현으로써 「お撮りになっていらっしゃる」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본다. 지나친 과잉경어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도리어 불쾌감을 주거나 실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경어의 중복은 가능한한 피하는 편이 좋다.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실례가 된다고 생각될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 첨가형식 중에서 현대에 와서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お+동사연용형+보조동사」, 「ご+한어+보조동사」의 형태이다.

- ①ここにおかけになってください.
- ②これから先生がご案内くださいます.
- ③先生のお呼びです.
- ④お話し申し上げたいことがございますが, 聞いていただけますか.
- ⑤簡単に御説明いたします.
- ⑥ご心配はいりません.

위예 「おかけ」·「お話し」·「お呼び」는 모두가 동사 연용형, 「ご案内」·「ご説明」·「ご心配」는 한어명사에 「お」, 「ご」가 붙은 형식이다. 동사의 연용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명사화되었다는 것이다. 요즈음 유치원 어휘로써, 「お話し」·「お並び」·「お遊び」등도 이에 속한다. 이와같은 형식들이 증가추세따라, 때로는 의미가 불명료

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赤い羽根にご協力ください」와 같은 표현은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赤い羽根を付けてください」로 사용하게 되면 그 의미가 분명해 질거라고 생각한다. 결국, 언어는 전달이 수단이기 때문에 표현자의 의도가 명확하고, 명료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명사 위주보다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동사중심으로 경어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들면, 「新幹線をご利用いただき,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를 「新幹線にのっていただき,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의 표현을 쓰게 되면 더욱 구체적이고 명료해짐을 알 수 있을것이다. 「ご利用」는 호텔의 경우라면 「숙박하다」, 백화점의 경우라면 「물건을 사다」, 술집의 경우는 「마시다」 등, 모든 것을 포괄한 말이 된다. 포괄이라는 말은, 때로는 사물의 판단을 애매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가능한한 한어 및 명사에 가까운 동사연용형 보다는 동사의 경어표현형태가 의미가 구체적이고 명료하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일본경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야인 경어행동 「お」·「ご」의 선택조건, 구조적인 특색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2장에서는, 경어행동을 좌우하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기술하였다. 경어표현주체자인 나와 경어표현 수용자인 청자와의 관계에서 청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표현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상위자라고 의식한 청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어가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경어는 상하관계의 식별에 기초를 두어 敬意가 동반되는 경우이다.

상하관계에는 역할적 상하관계, 연령적 상하관계, 신분적 상하관계등이 있다. 요즈음에는 신분적 상하관계는 쇠퇴하고, 점점 역할에 따라 상하관계가 구별되어가는 경향이 강하다. 연령에 의한 상하관계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든 경어행동을 좌우하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의사와 환자, 고객과 점원등과 같이 상업관계, 이해관계상으로 맺어진 대인관계에서는, 신분적·지위적 상하관계와는 관계가 없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경어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친소관계가 경어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당연하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표현이 정중해지고 격식차린 표현을 쓰기 마련이다. 점점 친해짐에 따라 경어표현이 줄어들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요즈음에 와서 각종 상하관계에서 친소관계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추세에 있다.

3장에서는 「お」, 「ご」의 선택조건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和語계통의 語에는 「お~」가 붙고, 漢語계통의 語에는

「ご」가 붙지만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お」, 「ご」의 사용방법과 문제점을 지적해 놓았다. 요즈음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お」, 「ご」의 사용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ご返事」가 「お返事」도 가능하게 되었고, 「ご立派」가 「お立派」가 되어도 무방하게 되었다. 한편, 여성과 관련된 漢語어휘에 점차 「ご」에서 「お」로 변해가는 현상도 볼 수 있다. 「ご料理」가 「お料理」로 바뀐 것도 바로 그런 현상이다.

4장에서는 일본경어의 복잡성을 하나의 특색으로 기술하였다. 복잡하다는 것은 존경어, 겸양어, 정녕어(정중어), 미화어등의 경어 체계가 다양하다는 것과 장면장면마다 적절한 말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어휘에 각각의 경어형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어형에 「お」·「ご」·「さん」·「さま」등과 같은 첨가형식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어휘라도 사용의 장면, 문맥, 의식에 따라 존경어도 겸양어도 미화어도 될수있는 불규칙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일본사회와 더불어 존재하는 경어는, 일본어의 아름다운 특색 일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 경어가 각각의 장면장면에 응해서 그 분위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사용되어지게 되면 경어의 아름다운 효과는 더욱 발휘될 것이다.

내 용 주

- 1 つじむら敏樹(1977).『岩波講座日本語4敬語』, 「日本語の敬語の構造と特色」참조
- 2 紫田武(1957). 「「おの付く語・付かない語」」 『言語生活』70, 筑摩書房. 『講座ことばの生活』참조
- 3 菅野謙(1966). 國文學 第11卷 第8號 참조
- 4 일본경어의 체계에 대한 논란은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는 大石初太郎氏 「敬語」의 의견을 따랐고, 분류방법은 つじむら(1967) 「敬語の敬語」 (共文社), 宮地(1971) 「文論」(明治書店), 李義斗(1987) 「日語日文學研究」, 「日韓兩言語の敬語に関する一考察」등을 참고하였으며, 예문은 필자가 임의대로 만들었음.

참 고 문 헌

- 大石初太郎 (1975) 「敬語」(筑摩書房)
 大石初太郎 (1983) 「現代敬語研究」(筑摩書房)
 江川清 (1973) 「階層と敬語」(『敬語講座6現代の敬語』林四郎·

南不二男 編)

- 奥山益郎 (1978)『現代敬語讀本』, 人間關係のエチケット, きょうせい
つじむら敏樹 (1977)『日本語の構造と特質』(『岩波講座日本語 4・敬語』)
岩波書店
つじむら敏樹 (1983)『敬語史の方法と問題』(『講座國語史』), 大修館書店
つじむら敏樹 (1978)『敬語の分類について』(『論集日本語研究・敬語』,
有精堂
宮地裕 (1983)『現代の敬語』(『講座國語史 5・敬語史』, 大修館書店
林四郎 (1973)『現代の敬語』, 明治書院
南不二男 (1974)『敬語の体系』, 明治書院
文化廳 (1974)『コトバノシリーズ・敬語』, 大藏省印刷局
文化廳 (1971)『待遇表現』, 大藏省印刷局
宇野義方 (1977)『現代敬語の問題点』(『岩波講座日本語 4・敬語』),
岩波書店
國立國語研究所 (1983)『敬語と敬語意識』, 三星堂
田中章夫 (1978)『敬語論義はなぜ起るか』(『論集日本語研究・敬語』)
有精堂
李義斗 (1987)『日語日文學研究』『日韓兩言語の敬語に關する-考察』

전북 익산시 신룡동 344-2
원광대학교 일어교육과
이회두